

계 열 문 항 1

<가>

시장 이런 말을 꺼내기 참 괴롭습니다만, 스톡만 박사는 우리의 온천과 리조트 전체를 파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마을은 최고의 휴양지로서 국제적으로도 이름이 나려는 순간에 와 있습니다. 난 5년 안에 여기 모인 여러분들을 세계 최고의 부자 시민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학교가 들어서고 고속도로가 건설되며 주택단지가 새로 조성될 것입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려는 것처럼 온천의 작은 문제를 확대하고 과장하여 우리의 앞길을 막는 권리를 주장해도 되겠습니까?

(스톡만, 보고서를 들고 단상으로 오른다)

스톡만 여러분, *(시장을 가리키며)* 시장계선 여러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실에 대해선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민 1 우린, 박사님을 잘 알고 있어요.

스톡만 아니요, 여러분은 저를 모릅니다. 전 마을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여기 왔습니다. 온천의 수질은…….

주민 2 마을이 싫으면 집을 싸가지고 조용히 나가시우!

(주민들, 반대의 반응을 보인다. 잡아치우라는 고함 이 터져 나온다. 한 시민은 나팔을 불어댄다. 스톡만, 원고를 내리고 좌절을 느끼며 뒤로 물러선다)

신문기자 제발 조용히들 하십시오. 박사님, 박사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투표를 먼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수의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스톡만 *(돌아서서 원고를 군중에게 뿌린다)* 투표할 필요도 없소. 다 알았습니다. 온천은 더 이상 나의 주제가 아닙니다.

신문기자 박사계선 열심히 살고 있는 선량한 민중을 그런 식으로 비난하는 것입니까?

스톡만 민중이라는 마법의 단어로 날 취하게 하지 마시오. 인간의 겉모습을 지녔다고 저절로 민중이 되지는 않습니다. 민중의 명예는 반드시 성취해서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라는 이름도 역시 쟁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온천물은 오염되었습니다!

시장 당신이 그럴 권리는 없어!

스톡만 그렇게도 내가 무서운가요? 온천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군중에게 말한다)* 난 한때 다수의 민중이 내 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에게 다수가 있다. 그 느낌은 괜찮았습니다.

주민들 혁명가는 물러가라!

스톡만 난 혁명가가 아닙니다. 아니, 정정하겠습니다. 그래요, 나는 혁명가입니다! 다수가 항상 옳다고 믿는 허위의식에 반대하는 혁명가입니다. 잘 들어주세요. 다수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단언합니다.

신문기자 다수가 원하면 소수는 다수의 의견을 따라야 합니다.

스톡만 다수가 모르는 것을 소수가 알고 있다면, 다수와 논쟁하고 다수와 싸워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소수의 권리 아닙니까? 다수가 깨닫기 전에 소수가 먼저 깨달았다면? 소수의 권리는 다수에게 공격을 받더라도 신성한 것입니다.

<나>

포퓰리스트들은 직설적이고 단정적인 말투를 즐겨 쓴다. 어렵고 복잡한 말 속에 담긴 지배 이데올로기를 비판하면서 보통사람들이 쓰는 말을 의도적으로 흉내 낸다. 포퓰리스트들은 지식인 특유의 추상적 언어와 전문적 용어에 강한 거부감을 느낀다. 엘리트들이 보통사람의 접근을 막고 자기 이익을 영구히 누리기 위해

일부러 말을 어렵고 복잡하게 한다는 것이다.

포퓰리스트들이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과 분석틀, 나아가 문제를 풀어가는 대안도 단순, 명쾌하다. 포퓰리스트들은 인민을 신주 모시듯이 한다. 그들이 찬양해 마지않는 보통사람들은 일상적이고 평범하다. 말을 돌려서 하지 않고 직설적으로 자기 의사를 표현한다. 단순하고 명료한 것이야말로 인민의 표상이요, 미덕이다. 따라서 포퓰리스트들은 단순정치를 펼친다. 정치라는 것이 보통사람의 지혜를 구현해야 한다면 그 모습은 단순하고 직접적인 성격을 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포퓰리스트들은 세상일에 대한 해법도 보통사람들의 상식에 입각해서 간단하게 제시한다. 이분법적 세계관과 단순정치가 조합을 이루게 되면 정치적 현안에 관한 토론이나 담론 자체도 찬성과 반대로 양극화되어 나타난다. 이해관계뿐만 아니라 이슈도 이원화되는 것이다. 정치 세계가 적대적인 둘로 나뉘듯이 정치적 이슈도 그 관점에서 파악된다. 즉 정치적 이슈가 '좋고 나쁨', '옳고 그름', '우리 편과 그들 편'으로 단순화된다.

정치적인 분석이나 현실 문제에 대한 대안 역시 간단명료하면서도 직접적이어야 한다. 그래서 포퓰리스트들은 '여기, 지금'에 초점을 맞춘다. 추상적 표현이나 먼 후일에 해당되는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 너무 거창하고 고상한 것도 삼간다. 그 대신 구체적이고 생생한 느낌을 주는 주변의 일, 즉각적인 일을 화제에 올린다. 중장기적 과제나 나와 무관해 보이는 타인의 고통은 모른 척하고, 즉각적이고 가시적인 효과가 있어 보이는 대안을 제시한다. 포퓰리스트들은 구체적인 특정 상황, 그리고 듣는 사람이 바로 자신의 일인 양 여길 수 있을 만한 과제에 힘을 쏟는다.

포퓰리스트들은 이런 명분과 논리를 통해 정치적 논쟁을 선점해 버린다. 자기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논쟁을 몰고 간다. 그들은 인민의 진정한 대변자로 자처하며 정치적 대칭 관계에 있는 세력들을 '반인민적'인 세력으로 몰아붙인다. 인민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곧 정치적 정당성의 근거라고 규정한다. 다른 정치 세력들은 싫든 좋든 포퓰리스트들이 선점해버린 논쟁 구도 속으로 들어와야 한다. 포퓰리스트와 '선명성 경쟁'을 벌여야 하는데, 이 싸움이 쉽지 않다.

<다>

민주주의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고 정당하게 보이는 결과뿐만 아니라, 좀 더 합리적인 결정을 만들어 내야 한다. 광범위한 사람들을 끌어안아야 하며, 평등한 사람들 사이의 자유롭고 상호적인, 이성적 토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어떤 논쟁거리라도 그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개인들은 다른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이성적 설명을 통해 자기 주장을 하도록 권장된다. 이런 토론과 논쟁 과정을 통해 내려진 결정은 설령 합의가 안됐다 해도 정당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것들은 참가자 자신을 위한 협력과 상호 정당성을 추구한 과정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어떤 주어진 제도적·정치적 조건에서 개인들의 선호는 고정되어 있고 개인들은 자기가 더 선호하는 것들에 순서를 매길 수 있다는 것이 전통적인 선택 방식(투표, 여론조사 등)의 가정이다. 그러나 개인들이 복잡한 사회적·정치적 문제에 분명하고 일관된 선호나 의견을 갖고 있을 것이라는 가정은 오류다. 그런 판단은 공개적이고 공정한 대중의 논의 과정을 통해서만 형성될 수 있다. 자유주의 경제학에서 말하는 개인들의 선호나 선호 순위라는 것은 정치적 조건이 만들어내는 변수일 뿐이다. 또한 자유주의 경제학은 사회 전체의 행복이 개인들의 행복의 단순 합계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런 단순 합계는 불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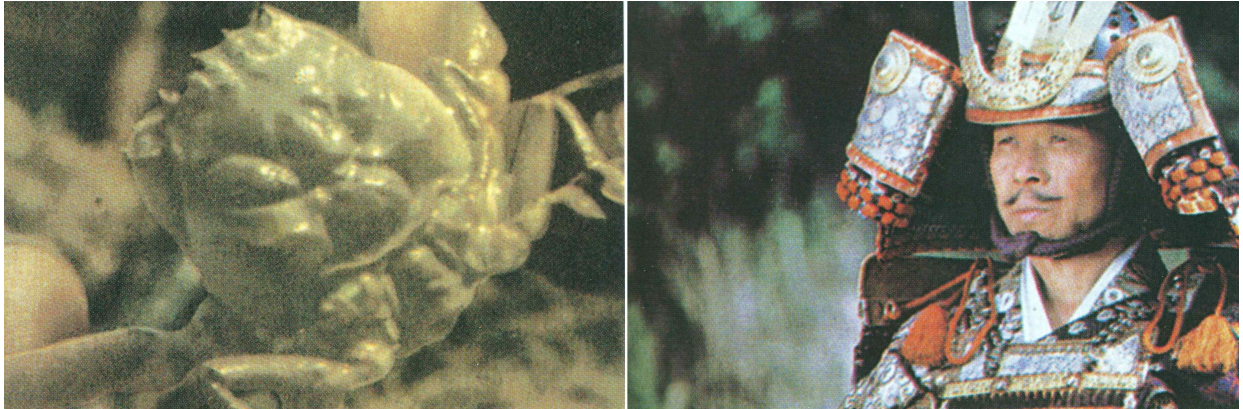
그 대신 민주주의는 공유된 이익이나 공유된 자원에 대한 합의의 형성을 추구해야 한다. 개인들은 이기적인 이익을 넘어서서 합의를 추구해야 하며, 사회는 이를 위한 제도적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 물론 민주적 논의 과정에서 개인들의 선호 체계가 바뀌고 개인들이 좀 더 강한 시민성을 갖게 된다고 확신할 수는 없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도덕적으로 받아들일 만한 방식으로 모두가 관심 있는 광범위한 주제에 대해 개인들이 서로 마음을 열고 이야기할 수 있는 토론의 장, 모든 사람을 포괄하고 가능한 모든 정보가 제공되는 그런 토론의 장이 있다면, 사람들이 애초의 의견을 변경해가며 합의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은 분명하다.

1. <가>의 문제 상황을 <나>의 입장을 활용하여 분석하고, <다>의 관점에서 대안을 제시하시오. (1,000±100자)

계 열 문 항 2

<가>

일본의 단노우라(壇の浦) 지역에서 발견되는 게의 등딱지에는 기이한 무늬가 나타나 있는데 그 무늬는 섬뜩하리만큼 사무라이의 얼굴을 빼어 닮았다. 이 게에는 다음과 같은 사연이 전한다.



1185년 일본의 천황은 안토쿠(安徳)라는 이름의 일곱 살 소년이었다. 그는 헤이케(平安) 사무라이 일파의 명목상 지도자였다. 당시 헤이케 파는 숙적 겐지(原氏) 파와 오랫동안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치러 오던 중이었다. 둘의 자웅을 겨룰 운명의 해전이 1185년 4월 24일 일본의 내해 단노우라에서 벌어졌다. 이때 안토쿠 천황도 전함에 타고 있었다. 헤이케 파는 수적으로 열세였고 전략 면에서도 겐지 파에 비해 처지는 편이었다. 헤이케 함대는 전멸을 당했다. 살아남은 사람이라곤 여자 42명뿐이었다. 이들은 원래 궁중의 시녀였는데, 그 후 전쟁터 근처에 살던 어부들의 여종으로 살아야 했다. 그러는 동안 헤이케 파의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그러나 시녀와 어촌 사람들 사이에서 태어난 후손들은 단노우라 해전을 기념하는 축제를 열기 시작했다. 이 축제는 오늘날에도 매년 4월 24일에 거행된다. 축제일이 되면 자신을 헤이케 사무라이의 후손이라 생각하는 어민들은 대마로 만든 옷을 입고, 검은 머리덮개를 쓰고 물에 빠져 죽은 천황의 영정이 모셔져 있는 아카마(赤間) 신궁으로 행진한다. 몇 세기가 지난 후에도 사람들은 사무라이 유령들이 바닷물을 퍼내느라 헛수고하는 모습이 보인다고 했다. 그들은 지금도 바다에서 피와 패배와 굴욕을 씻어 내려고 그런다는 것이다. 어부들 사이에 구전되는 전설에 따르면 헤이케의 사무라이들은 게가 되어 지금도 일본 내해 단노우라의 바닥을 헤매고 있다고 한다.

어부들은 이런 게가 잡히면 단노우라 해전의 비극을 기리는 뜻에서 먹지 않고 다시 바다로 놓아 준다고 한다. 이 전설은 우리에게 재미있는 문제를 하나 던진다. 어떻게 무사의 얼굴이 게의 등딱지에 새겨질 수 있었을까?

답은 아마도 “인간이 게의 등딱지에 그 얼굴을 새겨 놓았다”일 것이다. 게의 등딱지 형태는 유전된다. 그러나 인간처럼 게들에게도 여러 유전 계통이 있게 마련이다. 우연하게 이 게의 먼 조상 가운데 아주 희미하지만 무사의 얼굴과 유사한 형태의 등딱지를 가진 것이 나타났다고 가정해 보자. 어부들은 단노우라 해전 이후 그렇게 생긴 게를 먹는다는 생각을 그리 달갑게 여기지 않았을 것이다. 그들은 이 게들을 다시 바다로 돌려보냄으로써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진화의 바퀴를 특정 방향으로 돌렸던 것이다. 평범한 모양의 등딱지를 가진 게는 사람들에게 속속 잡아 먹혀서 후손을 남기기 어려웠다. 그러나 등딱지가 조금이라도 무사의 얼굴을 닮은 게는 사람들이 다시 바다로 던져 놓은 덕분에 많은 후손을 남길 수 있었다. 게 등딱지의 모양이 그들의 운명을 갈라놓은 셈이다. 세월이 흘러갈수록 사무라이의 얼굴과 비슷한 등딱지를 가진 게들의 생존 확률이 점점 더 높아졌다. 마침내 무섭게 찌푸린 사무라이의 용모가 게의 등딱지에 새겨지게 된 것이다. 그 결과 단노우라에는 많은 사무라이 게들이 살게 됐다. 이 과정을 우리는 인위선택(artificial selection)이라고 부른다.

<나>

인간은 변화를 정리하는 동물이다. 무엇보다도 생각으로 정리한다. 아니, 그럴 수밖에 없다. 만물의 변화를 물리적으로 정리할 수는 없지 않은가? 칸트 식으로 표현한다면, 인간은 만물의 변화에 대한 ‘인식의 방식’을 지니고 있다. 인간이 세상을 인식하고자 하는 욕구와 방식은 다양하지만, 인간은 그 안에서 일정한 패턴 또는 모듈을 발견한다. 오늘날 무질서의 정립보다 더 관심을 갖는 인식 방식은 인과의 원리이다. 인간에게 인과율은 거의 본능화한 인식 방식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마이클 셔머는 인간은 우연하고 불확실한 것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의미 있는 패턴을 추적하고 현상의 인과 관계를 찾도록 진화해 왔다고 주장한다.

월퍼트도 인간에게는 사건을 설명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데 인과율적 설명을 위한 일종의 강박은 오히려 다양한 믿음을 발생시킨다고 본다. 특히 위기의 시기에 인과율적 사고는 합리적이지 못하고 강박적인 믿음이 된다. 다시 말해 우연의 현상들에서 필연의 연결고리를 강박적으로 찾게 된다. 믿음의 대표적인 특징이 어떤 사건의 원인을 찾는 데에 있다면, 중요한 사건의 원인을 찾지 못하는 무능력 상태는 정신적 불쾌감은 물론, 심지어 불안까지 유발하기 때문에 인간은 인과적인 이야기를 꾸며내면서까지 어떻게든 해명하려고 한다. 현상의 원인들을 간과하는 것은 인간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맥락에서 초월적 존재에 대한 믿음과 신화적 믿음도 인과적 믿음의 가지치기로 설명할 수 있다. 월퍼트는 “어쩌면 초월적 믿음은 불가능한 사건들을 해석하려는 노력이 신비한 원인들과 세력을 불러내고 싶은 마음과 결합된 결과일 수 있다”고 본다. 중요한 것은 이 믿음들이 일상 경험과 과학적 실증의 범주 밖에 있는 원인을 부각하여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긍정적인 힘을 부여한다는 점이다. 사람들은 믿음 엔진의 힘으로 믿음의 세계를 형성해 가는 것이다.

<다>

옛날에는 바람이란 바람의 신 아이올로스의 날숨이며 바람이 그의 기분이나 다른 신들의 명령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는 생각이 합리적이었다. 당시 사람들의 관념과 자연 이해에 부합하는 일관성 있는 해석이라는 의미에서 합리적이었던 말이다. 하지만 공기가 물질 분자들로 이루어져 있고 압력 차이가 온도와 관련되어 있음이 밝혀지자, 즉 공기가 어떻게 그리고 왜 움직이는지에 관한 반증(反證) 가능한 모형이 제시되자 바람은 이제 과학의 영역이 되었다.

과학은 설명하기 어려운 자연의 경험을 체계화한다. 의식적으로, 그리고 필요한 경우 정량적으로 관찰하고 그 결과를 주의 깊게 기록한다.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축적된 경험을 두터운 기록에 포함시킨다. 초자연 현상에 대한 과학적 이해를 위하여 의식적으로 가설을 세우고, 이성적 검토를 통해 이 가설과 기존에 알려진 지식과의 관련성에 대해 탐구한다. 이렇게 과학은 세계를 체계화하고 그러면서 ‘과학적 이해’는 발전한다. 이 발전이 신화의 어렴풋함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 줌은 물론이고,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도 풍부하게 해 준다.

하지만 과학이 의심할 수 없는 사실들만의 집합은 아니다. 오히려 자연에 관해 질문하는 과정이다. 자연은 인간의 인식 범주보다 훨씬 더 넓기에 자연 속의 모든 것에 관한 과학적 설명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어느 특정 시기에서 보자면 틀린 ‘과학적 추론’도 많다. 하지만 과학에서 틀린 추론은 결국에는 승리하지 못한다. 자연 현상이 늘 결정권자로서 대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학은 그릇된 생각을 교정하는 발걸음을 재촉하기 위한 여러 기법들을 개발해 냈다. 이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 회의주의(懷疑主義)다. 우리는 늘 회의적이며 그 추론이 옳은지 확인하고 싶어 한다. 이 회의주의 덕분에 많은 성급한 추론들이 수정된다. 공식·비공식적 수단을 통한 지속적인 검토는 다른 지역의 자연 현상 등과 비교하며 진행되는데, 이렇게 한다면 모순을 찾아내서 제거할 기회가 더 많아진다. 회의주의라는 이 고도의 활동은 현 시대의 과학 지식을 교정하며 발전시키는 데 핵심 역할을 한다.

2. <나>를 요약한 후 이와 연관지어 <가>의 헤이케 후손들의 행동을 설명하고, <다>의 논지에 입각하여 <가>의 서술자의 과학적 추론을 논하시오. (1,000±100자)